

2020년 교회 표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인생광야에서의 감사

사도신경 - 찬송 428장 - 기 도

- 성경본문 시편 57편 4절 ~ 11절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 하나님이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 삶 나누기

2020년을 보내며 한 해 동안 코로나 19팬데믹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봅시다.

말씀나누기

다윗은 사무엘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이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최측근으로 왕궁에 거하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의 시기를 받는 원인이 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가 왕궁에서 빠져나와 엔게디광야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편57편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엔게디까지 쫓겨나 생명의 위협 속에 처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무방비상태의 자신의 처지를 재앙이라 표현(시57:1)하며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이 처한 현실처럼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상실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찾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을 영원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이어서 8절에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선포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을 깨우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 목적과 비전이 새롭게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현실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순간을 이제는 철저히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향유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9절)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면서 사물과 현상을 왜곡해서 보게 합니다. 눈 앞에 곤경이 크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말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습

관이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과 같이 믿음을 버리고 부정적인 증거만 갖고 보는데 익숙해집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그 자체가 위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자아내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즉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는 말입니다. 염려,불안,두려움,걱정이 임하는 순간에도 주님께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말씀은 가장 심각한 상황까지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말씀은 가장 심각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도 주님안에서 죽으면 괜찮은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라는 고백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라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힘든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의 시간들을 수용하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향유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산물이 아닙니다. 생의 태도입니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요 관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10명의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열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눅 17:17). 같은 상황에서 반응이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친 세상,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별탈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이 더욱 풍성해지고, 감사가 더욱 넘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 나눔

1. 지난 시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렵게 지냈던 경험을 이야기 해봅시다.
2. 인생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경험을 나눠보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기 위해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할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3. 올 한해 동안 감사드릴 내용을 세 가지씩 나눠봅시다.

◆ 광고 ◆

1. 11월 권찰회는 코로나 19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영상교육으로 대체합니다.
2. 2021년 교회요람작업을 위해
12월 11일(금)까지 교적정리(1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구 신임원단, 구역원변경 및 권찰변동 등)
3. 2020년 권찰회 중강 :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30분, 대예배실